

충인공은 숙종 2년(1676) 4월 22일에 태어나셨다. 공의 휘는 봉상이시고 자는 의숙이다.

어릴적부터 그는 의연하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 하셨다. 또한 남달리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의 심기를 흐려놓지 않았다. 그의 나이 열 살 남짓하였을 때 그의 어머니께서 기동을 못할 정도로 많이 편찮으신 적이 있었다. 여러 명의 의원이 다녀가고 한약도 많이 다려 먹었지만 차도가 없자 봉상은 여러 어른들의 말을 빌어 산삼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직접 삼을 구하러 며칠을 다닌 중에 두 뿌리를 구해 직접 손으로 다려 어머니께 드렸다. 덕분에 그 효성으로 인해 차도가 생겨 며칠 후엔 거동할 수 있었다 한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충무공의 후예임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또한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임란때의 그 어지러운 사회에서 꺼져가는 조국의 운명앞에 마지막 목숨을 내걸고 조국을 지킨 그의 할아버님 이순신 장군을 늘 존경하면서 그 분의 뜻을 길이 세우려고 그 또한 무예에 힘썼다.

"나는 기필코 내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한 몸을 이 거래를 위해 바치겠다." 그의 결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의 이런 결심은 날이 갈수록 더한 것이어서 드디어 27세때 무과의 장원급제에 올랐다. 임금의 총애를 받아 가면서 승지 형조참판을 거쳐 훈련대장을 지내면서 그는 생각했다.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조정의 기밀을 밖으로 새어 보내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가 많은 터, 내 필히 이를 제거하여 조정의 편안함을 도모하리라."

그의 굳은 결심은 눈빛으로 빛났다. 얼마가 지났다. 그는 임금 앞에 정중히 엎드렸다. "상감마마, 아직도 이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다른 백성들을 괴롭혀 조정의 원한을 사게 하는 자가 있는 데 이를 엄히 다스려야 할 줄 믿사옵니다." 그의 말이 떨어 지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대신들의 표정이 놀란 토끼마냥 서로의 눈빛들만 오고 가면서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연신 입가에 흐린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노려 보았다. 하지만 잠시뿐! 대신들은 본래의 얼굴을 찾아 임금께 아뢰었다. "마마! 훈련대장은 지금 영동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들이 알아본 바 훈련대상은 군사들의 군비를 대량으로 유출시켜 밖으로 빼돌리던 것을 소신들이 눈치채자 이를 막으려 선수를 치려함이 분명하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호랑이를 잡으러 굴속에 들어 갔다가 오히려 호랑이 밥이 된 줄을 안 그는 그들의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자 두 눈을 감아 버렸다.

"임금만이 나의 결백을 알아 주리라." 그는 지금 임금의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우같은 간신들이 앞에 버티고 있는데 함정에서 헤어나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간신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이처럼 조정에서의 노론파와 소론파의 세력다툼에 밀려나 도로 충청도 병사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러나 27세 때 무과시험에서 같이 급제한 이인좌는 충청도에 있을 때 이봉상의 밑에서 지내고 있었으나 그 뒤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그의 직위도 오르기 시작하여 같은 해 둘은 조정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이봉상을 몰아 내기 위해 갖은 모략을 다 쓰고, 충청도 병사로 내려 왔음에도 맨 처음같이 지냈던 청주를 자기의 땅으로 만들려고 이 병사를 죽이려고 계획하였다. 이인좌는 칼을 잘 쓰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 무술대회를 개최 각 지방에서 무술을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 둘 모여 들었다. 모두들 뛰어난 솜씨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양덕박이란 사람은 특출하게 뛰어나 이인좌의 눈에 들어 그 사람을 직속부하로 두어 매수하기에 이르렀다. 이인좌는 양덕박이란 사람을 더욱 잘 대해 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병사의 성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병사의 행동과 그 곳의 사정을 이인좌에게 전하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돈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병사와 생일이 되어 모두들 즐겁게 놀고 마음껏 즐기는데, 이인좌는 양덕박을 부르더니 성안의 동태를 물으면서 자정을 기해서 성문을 열어 주면 높은 벼슬을 준다고 하면서, 어여쁜 처녀에게 그를 유인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이인좌의 계략에 넘어가 허락하고 말았다. 양덕박은 높은 벼슬에다 예쁜 여인까지 얻는다는 데 승락한 것이었다.

이윽고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문은 서서히 열리니 미리 숨어있던 괴한들은 복면을 하고 하나둘 어둠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달은 이 광경을 차마 보기 안타까운지 구름 속으로 숨어 버렸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고 다만 한 어두운 그림자만 이병사의 침실로 다가가고 있었다. 이병사는 자기의 생일날이지만 즐거움 속에 나라의 세력 싸움을 걱정하며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안 양덕박은 미리 이

병사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자꾸 권하라는 이인좌의 말에 술을 권하니 아니 마시지 못하고 받아 마셔 지금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검은 그림자가 손짓을 하자 10여명의 괴한들은 한꺼번에 몰려 들어 갔다.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콧끝을 스쳐 눈을 뜬 이병사는 괴한이 침입한 것을 알고 재빠른 동작으로 늘 지니고 있던 검으로 이들을 물리치려 하였지만 아무리 칼 숨씨가 뛰어났다 하지만 그의 나이 벌써 50을 넘은지가 오래요 술에 취했던 탓으로 그의 몸은 뜻대로 듣지 않아 마침내는 순국하게 되었다.

한편 조정에서는 다시 노론파의 세력이 돌아와 이병사의 죽음을 알리게 되었다. 영조대왕은 그를 역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큰 잘못으로 깨닫고 그의 충심을 알아 시호를 충민공이라 하였다. 그 뜻은 제물을 던져 임금을 받들었으니 충이요. 제 나라의 난을 치루었으니 민이라 한다. 그 후 반란은 평정되어 이인좌는 잡혀 죽고 조정에서 소론파들은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공의 묘소는 처음엔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 아라산하 덕산군 묘하에 장례를 모시고 신도비를 세웠다. 후일 아산리 동쪽에 이장하고 신도비는 그 자리에 두고 묘전에는 표석만 세웠다. 나는 이 묘소를 지나칠 때마다 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국에 바친 그 희생정신, 열사봉공, 충성심에 지금 우리가 남북파 대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며, 또한 가슴이 뭉클해짐을 감출 길이 없다.